



##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 美 복지후생정책 일대전환

게으름뱅이와 가난뱅이도 웰페어덕분으로 놀고 먹을 수 있었던 복지국가 미국이 직업윤리를 내세우며 복지정책에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타임 최신평가 전한다.

일하지 않고도 나라에서 주는 복지후생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미국의 웰페어수혜자층 상당수가 이제 무슨일이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레이건 행정부의 국민복지정책이 웰페어에서 워페어로 바뀜에 따라 현재 20개 이상의 주거부정 일할 능력이 있는 웰페어수혜자에게는 일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페어프로그램은 웰페어수혜자층 장애자와 취학전 아동을 자녀로 둔 편부모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이 자립하도록 교육 및 취업훈련과 취업알선까지 해주는 것.

미국의 웰페어문제는 사회보장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지난35년부터 정치적 쟁점

이 되어온 것으로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이것이 적선에 불과하며 미국의 직업윤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아온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경제·사회적 환경의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으로 이를 보아왔다.

그러나 사회하류계층출신의 미혼모가 급증하면서 자녀부양가정보조(AFDC)프로그램과 같은 웰페어는 애초 의도한바대로 문제를 완화시키기 보다 오히려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회의가 일기 시작한 것.

워페어프로그램이 정부정책으로 제안된 것은 이미 10여년전으로 닉슨행정부때인 지난 71년에 나온 근로장려(WIN) 프로그램이 그 효시이다.

그러나 WIN은 이론에 그쳤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는데 레이건 정부에와서 이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취지가 살아난 것.

특히 예산삭감으로 사회 프로그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각주 정부에서 웰페어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워페어프로그램<sup>\*</sup>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를 예로들면 지난 83년 웰페어수혜자 19,000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준 결과 2년간 5,400만달러의 예산이 절약되었다.

워페어프로그램실시의 모델이 되고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9월 GAIN(자립을 위한 준비과정) 프로그램을 채택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당장은 연 3억 4백만달러의 예산이 들지만 오는92년까지는 주예산중 1억 1천 5백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워페어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줄기차게 일고있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을 비롯한 미국의 진



보파인사들은 이를 「가난한 자에대한 일종의 혹사행위」로 본다.

웰페어수혜자중 상당수는 시장성이 있는 직업기술을 갖지못한 젊은 미혼모들이므로 이들은 워페어프로그램에 따라 저임금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무엇보다 현재 미전체의 경우 6.9%, 흑인 10대의 경우 41.6%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워페어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있는 낮은 교육수준의 저숙련자를 취업시킬만한 일자리가 충분히 있겠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웰페어를 위한 워페어프로그램에 찬동하고 있으며 워페어프로그램의 참가자들 자신도 「놀고먹는 것보다는 일하고 먹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만족해야하고 있어 워페어프로그램은 보다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 연속착용 렌즈 큰 부작용

### 각막에 상처 · 염증생겨

하드 렌즈보다 훨씬 착용감이 편하고 기존 소프트렌즈처럼 간수하기가 번거롭지도 않아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연속착용렌즈가 최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타임지에 따르면 최근 각막염등 렌즈 사용과 관련, 컨택트 렌즈 제조회사 및 판매상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안과및 귀전문병원의 케네드 케년 박사에 따르면 렌즈 사용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없는 날이 없는데 이중에는 각막에 심한

상처와 염증이 생겨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막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까지 있다.

미식품의약국(FDA)이 30일간 계속 착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한 연속착용렌즈가 이같이 말썽을 빚는데 대해 의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고있다.

연속착용렌즈를 오랫동안 낀수 있는 것은 기존 소프트렌즈보다 공기구멍이 훨씬 많아 눈에 산소와 수분공급이 보다 원활히 되고 따라서 각막에 영양공급도 더욱 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작은 공기구멍들 때문에 노폐물이 렌즈에 쌓이게 되고 이것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이 안과전문인들의 설명이다.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은 급속히 각막까지 퍼져 24시간이내에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앞을 볼수없는 상태가 된다.

케년 박사는 이같은 눈의 염증이 조기에 발견돼 치료되더라도 많은 경우 상처가 그대로 남아 시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한다.